

교장이 여학생 상습 성추행 '충격'

관사에서 1년간 8차례 유사 성행위 시켜

여학생 뒤늦게 진술 번복 서한보내 의혹

경찰 영장 신청에 법원 "합의됐다" 기각

전남지역 한 여고 교장이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피해 여학생이 돌연 자신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담은 편지를 경찰서로 보내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경찰관은 15일 자신이 재직중인 학교의 여학생을 1년여 동안 성추행한 전남 모 여고 교장 K(5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로 전남지역 중학교와 고교에 근무했던 K 씨의 여고 근무는 이 학교가 처음이다.

휘발유 뿌린 은행강도

자녀 입양 등 참작해

광주지법 집유 선고

은행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가 자녀 2명을 입양해 키운 점이 고려돼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배)는 15일 은행 직원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정문에서 “은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해 2700만원을 빼앗은 죄질은, 그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가볍지 않다”며 “다만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입양해 양육해온 점, 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선처를 단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27분 광주시 광산구 한 농협 지점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 현금 2700만원을 포대에 담아 날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5일 '제6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맞아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깨우기 위해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광주 동구 총장로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학대받는 노인없는 세상을

주제 동구 총장로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금호석화 공장 건설 관련업체 압수수색

전남경찰, 비리 포착 수사

경찰이 지난 2월 준공된 여수산업 단지 내 금호석유화학 고무공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하청업체 간 리베이트 비리 정황(광주일보 2010년 10월 27일 10면)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대우건설 본사 재무금융부와 경기 이남 지역 공사를 총괄하는 중부지역 회계팀에 수사권을 보내 공사 계약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과 광주,

전남 등 대우건설과 공사를 함께 한

하청업체 9곳과 해당 입직원의 주거

지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보내 공사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를 압수했다.

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 측은 “대우에 공사를 준 것은 맞지만 이번 경찰 수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008년부터 3년간 1700억 원을 투자해 타이어, 신발 등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제품 중 하나인 부타디엔 고무(HBR)를 연간 12만t 생산할 수 있는 고무 제2공장을 준공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6개)

서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아파트]					
2010년 경 43984	1	남구 주월동 420-4 삼다에코빌아파트 1동 6층 701호 81.4048㎡	아파트	130,000,000 원 차인있음 130,000,000 원	
2010년 경 44338	1	북구 일곡동 849-8 102동 11층 1103호 59.36㎡	아파트	88,000,000 원 88,000,000 원	
2010년 경 44635	1	서구 양동 321-20 102동 2층 206호 59.85㎡	아파트	60,000,000 원 60,000,000 원	
2010년 경 45454	1	광산구 월계동 757-5 모아아파트 102동 5층 1호 95.31㎡	아파트	125,000,000 원 차인있음 125,000,000 원	
2011년 경 4191	1	광산구 수완동 933 해솔마을현진애버빌1단지 1101호 1층 602호 116.27㎡	아파트	300,000,000 원 300,000,000 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0년 경 40916	1	한화손금 한화순을 도당리 335 360㎡ 대	대	37,547,020 원 광매각·제시외 37,547,020 원 건물포함	
2010년 경 43687	1	한화손금 한화순을 광덕리 133-7 125㎡ 대	대	33,175,600 원 광매각·제시외 33,175,600 원 건물포함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2011년 경 3888	1	북구 증평동 348-30 1동 2층 101호 66.8㎡ 대세대	대세대	75,000,000 원 차인있음 75,000,000 원	
[내지·임야/전답]					
2010년 경 37255	1	나주시 웅진리 224-49 621㎡ [공유자최경애, 최경옥, 최도윤, 최도평각] 100평지분30분의1 [최상]	대	1,863,000 원 광유자수선매수권 1,863,000 원 행사재한	
2010년 경 33888 [종복]	2	동소 251-26 426㎡ [공유자최경애, 최경옥, 최도윤, 최도평각] 100평지분30분의1 [최상]	대	1,875,000 원 광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광유자수선매수권 행사재한	
3	동소 276-1 503㎡ [공유자최경애, 최경옥, 최경화, 최도윤, 최도평각] 80평지분30분의1 [최상]	대	6,288,000 원 광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광유자수선매수권 행사재한		
4	동소 386-3 3000㎡ [공유자최경애, 최경옥, 최경화, 최도윤, 최도평각] 911평지분30분의1 [최상]	대	13,000,000 원 광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광유자수선매수권 행사재한		

서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아파트]					
2010년 경 43984	1	남구 주월동 420-4 삼다에코빌아파트 1동 6층 701호 81.4048㎡	아파트	130,000,000 원 차인있음 130,000,000 원	
2010년 경 44338	1	북구 일곡동 849-8 102동 11층 1103호 59.36㎡	아파트	88,000,000 원 88,000,000 원	
2010년 경 44635	1	서구 양동 321-20 102동 2층 206호 59.85㎡	아파트	60,000,000 원 60,000,000 원	
2010년 경 45454	1	광산구 월계동 757-5 모아아파트 102동 5층 1호 95.31㎡	아파트	125,000,000 원 차인있음 125,000,000 원	
2011년 경 4191	1	광산구 수완동 933 해솔마을현진애버빌1단지 1101호 1층 602호 116.27㎡	아파트	300,000,000 원 300,000,000 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0년 경 40916	1	한화손금 한화순을 도당리 335 360㎡ 대	대	37,547,020 원 광매각·제시외 37,547,020 원 건물포함	
2010년 경 43687	1	한화손금 한화순을 광덕리 133-7 125㎡ 대	대	33,175,600 원 광매각·제시외 33,175,600 원 건물포함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2011년 경 3888	1	북구 증평동 348-30 1동 2층 101호 66.8㎡ 대세대	대세대	75,000,000 원 차인있음 75,000,000 원	
[내지·임야/전답]					
2010년 경 37255	1	나주시 웅진리 224-49 621㎡ [공유자최경애, 최경옥, 최경화, 최도윤, 최도평각] 100평지분30분의1 [최상]	대	1,863,000 원 광유자수선매수권 1,863,000 원 행사재한	
2010년 경 33888 [종복]	2	동소 251-26 426㎡ [공유자최경애, 최경옥, 최경화, 최도윤, 최도평각] 80평지분30분의1 [최상]	대	1,875,000 원 광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광유자수선매수권 행사재한	
3	동소 276-1 503㎡ [공유자최경애, 최경옥, 최경화, 최도윤, 최도평각] 80평지분30분의1 [최상]	대	6,288,000 원 광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광유자수선매수권 행사재한		
4	동소 386-3 3000㎡ [공유자최경애, 최경옥, 최경화, 최도윤, 최도평각] 911평지분30분의1 [최상]	대	13,000,000 원 광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광유자수선매수권 행사재한		
[기타]					
2010년 경 37088	1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산63-7, 산64-1, 산64-2, 산64-15, 가동543, 6㎡, 나동549, 6㎡, 디동543, 6㎡, 리동543, 6㎡, 마동543, 6㎡, 바동530, 3㎡, 사동783, 0㎡, 아동607, 5㎡, 자동567, 0㎡, 치동72, 0㎡, 키동990, 0㎡, 디동810, 0㎡, 제시외 229, 4㎡	축사	2,700,805,200 원 광매각·제시외 2,700,805,200 원 건물포함·기계재·기구구는 이미 매각되며 이재외 [2005년 경 2533], 원 차인있음	

관사에서 1년간 8차례 유사 성행위 시켜

만~5만원 가량의 돈을 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양은 경찰에서 “교장선생님이 관사에 데려간 뒤 20분 가량 변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했다. 불쾌했지만 교장선생님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주장했다.

K씨는 A양의 체육복에서 검출된 자신의 정액과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 경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물과 A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병기를 내고 학교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중순에 K씨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K씨는 병기를 내고 학교에도 출근하지 않았다